

# 미국의 PLT 및 Sharing Nature 프로그램 연수와 환경교육 시설 견학



단체명 PEN(*Project experience of Nature*)

연수기간 2002년 8월 13일~8월 28일(16일간)

연수인원 김지연(길동생태공원 코디네이터)  
양경모(녹색연합 교육위원)  
소창길(환경을 생각하는 전국교사 모임 사무국장)  
박 취(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김 력((사)숲래설가협회 숲래설가)

## 1. 연수 계획

이번 연수의 팀원은 모두 환경교육 분야에서 실제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서 초등학교 교사, 생태공원 코디네이터, 직업인으로서 숲해설가, 숲해설가 교육을 수료한 석사 및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사람들로서 팀원은 해외 연수 후에도 다각적인 면에서 연수내용에 대한 수용 및 비판과 현장에서의 직접 시연의 가능성과 능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인원으로 구성되었다. 연수계획서 작성을 위해 모여 토의한 결과, 환경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중심, 체험 중심의 환경교육이라는 것에 합의했다. 체험을 중요시한다고 하여 모임의 이름을 PEN(Project experience of Nature)로 정했다.

### 가. 방문지 선택 및 일정 조율

팀원들의 연수 동기에 따라 PLT와 Sharing Nature를 이번 연수의 중심에 놓고 국내에서 연수를 다녀온 사람이나 단체 담당자를 아는 지인들을 알아보았으나, 도와줄 만한 마땅한 사람을 구하기 어려웠다. 다소 막막하지만 ‘정보의 바다’라는 인터넷을 통해서 각 단체들에 대한 정보와 그들이 올 여름에 계획하고 있는 연수 일정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표 1> 각 단체의 홈페이지 주소

단체명	홈페이지 주소
PLT	<a href="http://www.plt.org/">http://www.plt.org/</a>
Project WET	<a href="http://www.projectwet.org/">http://www.projectwet.org/</a>
Project WILD	<a href="http://www.projectwild.org/">http://www.projectwild.org/</a>
Sharing Nature	<a href="http://www.sharingnature.com/">http://www.sharingnature.com/</a> <a href="http://www.sharingnature.or.kr(국내)">http://www.sharingnature.or.kr(국내)</a>
Yosemite Institute	<a href="http://www.yni.org/yi/">http://www.yni.org/yi/</a>
Yosemite National Park	<a href="http://my.dreamwiz.com/hsk1004/myungso/yo.htm">http://my.dreamwiz.com/hsk1004/myungso/yo.htm</a>
Redwood National Park	<a href="http://www.redwood.national-park.com/">http://www.redwood.national-park.com/</a> <a href="http://www.nps.gov/redw/">http://www.nps.gov/redw/</a>

### 나. 실무자 교섭

먼저 Sharing Nature의 경우 ‘한국 셰어링네이처 연구소’ 대표인 장상욱 선생님을 통해 일본 Nature Game 협회에 양해를 구해 6박 7일의 연수과정(568불)에 합류하기로 하였다. PLT의 경우 Heidi교수의 협조로 workshop에 참가하려 했으나 일정상 부득이 3단체와 공동 Meeting하는 것으

로 대체해야 했다. 국립공원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하여 우선 정보를 수집하였고, Yosemite는 Yosemite Institute와 이메일로 상황을 파악했고, 레드우드 국립공원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사전정보를 조사, 사전 예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현지 상황에 대처하기로 했다.

**<표 2> 사전 준비 내용**

스터디	Sharing Nature의 경우 2002년 출판된 『자연체험』을, PLT 등은 번역된 프로그램 소개서를 참고함.
예약 및 필수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캠핑을 위한 침낭, 깔개, 렌턴 및 선물 구입, 경비 절약을 위한 식사 준비</li> <li>▪ 비행기, 렌트카, 모텔 일부 예약</li> <li>▪ 공동명함 제작, 영문 모임 소개서 준비</li> </ul>
역할 조정	통역, 인솔, 기록, 총무, 사진촬영, 운전

## 2. 내용

**<표 3> 일정표**

날짜	연수일정	참가 프로그램
8월 13일	샌프란시스코 도착	
14일	요세미티 국립공원	Yosemite Valley 도착
15일		Yosemite Institute 교육 참관
16일		레드우드 주립공원으로 이동
17일	레드우드 국립공원	Crescent Vicitor Center & 주립공원 방문 Tree & Mistery 방문
18일		Humbolt 주립공원 내 ranger에 의한 해설 프로그램 참가
19일		방 배정, Opening Circle
20일	Sharing Nature 연수	코넬의 강의 및 Sharing Nature 교육
21일		2박 3일 야외교육 (시에라 산맥 트레킹, 캠핑 및 프로그램 진행) 코넬과 Q&A Sunset
22일		
23일		
24일		
25일	샌프란시스코	Exploratorium, 자연사박물관 탐방
26일	새크라멘토로 이동	
27일	새크라멘토	PLT & WILD & WET Meeting Effie Yeaw Nature Center 방문
28일	샌프란시스코	한국으로 귀국

## 가. 요세미티 국립공원 : 8월 14 ~ 16일

면적 3,061km<sup>2</sup>. 1890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캘리포니아주의 중부,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서쪽 사면 일대에 걸쳐 전개되는 대자연 공원이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국립공원 중 하나이다. 샌프란시스코에 근접해 있어 찾는 사람이 많다. 광대한 면적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도로는 몇 개 밖에 없으며, 그나마 끝에서 끝까지 관통하는 도로는 동서 횡단로 하나뿐이다. 연수팀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표 4>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의 주요활동

날짜	활동일	PEN의 주요활동
8월 14일	첫째날	Informationa Center에서 안내받고, 책자 구입 캠핑장소 예약 Yosemite Valley내 방문자 센터 방문 방문자센터 부근 Park Ranger에 의한 탐방코스 해설 참가 Yosemite Institue 사무실 방문
15일	둘째날	YI의 교육 프로그램 참관 Sierra Club 등 기타 프로그램 참가
16일	셋째날	Wawona Mariposa grove Park Ranger에 의한 탐방코스해설 참가 방문자센터 탐방 레드우드 국립공원으로 출발

<표 5> 요세미티 내 환경교육 운영주체별 활동

참여대상	시행단체	지원단체	기타사항	
일반인	무료	NPS	YA	주로 NPS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많으며, YA에서 지원하고 있다.
		ACC	자체운영	
		AAG	자체운영	
		YCS	자체운영	
		YA	자체운영	
	YI	자체운영		
	유료	Yosemite Guide	자체운영	참여자 희망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참여할 수 있다.
제도권 교육 내의 학생	유료	YI	자체운영	자체에서 직원을 고용하여 제도권 교육내의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

### \*약어 설명

- NPS(National Park Service)
- AAC(American Alpine Club)
- AAG(The Ansel Adams Gallery)
- YCS(Yosemite Concession Services)
- YA(Yosemite Association)
- YI(Yosemite Institute)

## (1) 교육 프로그램의 시사점과 문제점 분석

요세미티는 전 세계인들이 찾는 유명한 곳이다. 아름다운 경관에 비하여 접근이 쉽지 않아 미 대륙에 온 유럽인들에게 뒤늦게 발견되었고, “저기, 곰이 있다”는 뜻의 인디언말 ‘요세마이티!’란 말답게 여러 지역에서 아직도 곰이 출현하여 사람들이 다치는 사고도 가끔 발생한다.

곰 자체가 요세미티를 상징하는 동물로서 다양한 캐릭터 상품이 개발되어 있고, 곰이 서식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도 방문자 센터의 주된 테마였다. 요세미티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보고 느낀 것은 아래와 같다.

### 첫째, 다양하고 즐거운 프로그램의 준비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환경교육’하면 재미없고 억지로 의식을 강요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특별한 사람들나 참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 반면에 요세미티에서는 찾아오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만큼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고, 관광객들은 넓은 요세미티 각지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프로그램은 뛰어난 자연경관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큼 다양했다. 그 내용을 보아도 즐거움과 모험정신이 포함된 것이 많았다. 워낙 넓은 곳이라 프로그램 진행 동안 여러 장소로의 이동시간이 많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은 방문자들 중 요세미티에서 장기 체류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인 듯하다. Park Ranger에 의한 프로그램은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현지의 상황을 최대한 살려 설명해 주었고, YI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자들의 연령을 고려한 적절한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되었다.

### 둘째, 관과 민의 협력

무엇보다 관(NPS)과 민간단체(YI, YCS, Sierra 등)간 협력이 잘되는 있었다. 무료교육에 민간단체가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고 있었고, 유료교육에 있어서도 진행 방법에 무리가 없어 보였다.

### 셋째, 환경 의식이 있는 방문객들

캠핑 장소를 깨끗이 치워야 벌금을 내지 않는 않지만 어느 곳이든 말끔히 치워진 것을 보면, 이미 환경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캠핑 장소에서 꽤 가까운 거리에 모여 있음에도 나이에 상관없이 다들 적당히 즐기고 다른 사람의 휴식을 방해하는 고성방가 등의 행태가 없어 부러웠다.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자발적으로 참가했다.

### 넷째, 진행자에 대한 우대

진행자의 직업의식도 아주 중요한 것 같다. Park Ranger나 민간단체 프로그램 진행자의 경우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진행했는데, 이들이 자신의 일을 무척 좋아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 그러기 위해 그들에게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적 안전 장치와 사회적 인지도도 필요할 듯하다.

## 나. 레드우드 국립공원 : 8월 16~18일

면적은 231km<sup>2</sup>이다. 3,061km<sup>2</sup>인 요세미티에 비해 규모가 작고 해변을 따라 좁고 길게 펼쳐져 있다. 1968년 10월 2일 뒤늦게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1978년 3월 27일에 범위가 확장되었다. 1980년에는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 기구)에 의해 세계자연유산으로, 1983년 지구생태계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캘리포니아주의 북서쪽 태평양 연안에 있으며, 공원지정 지역은 몇 군데로 나뉘어져 있고, 공원에는 제디디아 스미스 레드우드, 텔 노르트 코스트 레드우드, 프레리 크릭 레드우드 등 13개의 주립공원도 포함되어 있다.

해안 산맥의 서쪽 비탈면에는 레드우드(일명 미국 삼나무)라고 부르는 세쿼이아 일종이 무성하다. 레드우드강(江) 연변에는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로 기록된 레드우드(112.1m)를 포함하여 키 큰 나무들이 많으며, 수령(樹齡)은 400~800년으로 알려져 있다. 캘리포니아 중부에서 남부의 오리건주까지 64km나 이어지는 해변과 바다에 우뚝 솟은 절벽 등 경관이 아름다우며, 인근 해안에는 바다표범, 바다사자, 물새들이 많이 살고 고래도 볼 수 있다. 기후는 여름에는 대체로 온난한 편이나 해안 근처에서는 자주 안개가 낀다.

<표 6> 레드우드 국립공원에서의 주요활동

날짜	활동일	PEN의 주요활동
8월 16일	첫째날	Humboldt Lagoons State Park 도착(Dry Lagoon) Praire Creek Redwoods State Park Visitor Center 탐방 탐방코스 산책
17일	둘째날	Crecent Visitor Center와 Crecent 주립공원 방문자 센터 Tree & Mistery(유료)방문 red wood National and state park visitor center Humboldt Lagoons State Park Visitor Center Humbolt Bay National Wildlife refuge
18일	셋째날	Humboldt Redwood State park visitor center 및 Park Ranger 설명 들음

### (1) 교육 프로그램의 시사점과 문제점 분석

음습한 기후 때문에 요세미티에 비해 많은 관광객이 찾는 장소는 아닌 듯했다. 그럼에도 연수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여 해안선과 함께 아름다운 숲 속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예전에 나무를 많이 훼손했었기 때문에, 복원하기 위해 계속 주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각각 방문자 센터를 두고 보전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었고, 지역의 생태계를 잘 알 수 있고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한 방문자 센터의 설계가 인상적이었다.

## 다. Sharing Nature : 8월 19 ~ 25일

우리 팀은 일본인 20명(어린이 5명 포함)과 함께 6박 7일(2박 3일의 네바다 산맥 캠핑 포함)의 연수 과정에 참가했고, 코넬이 속한 아난다 공동체의 규정에 따라 식사는 채식으로 하였고, 공동체의 식사 전에는 자유훈에 따라 요가와 명상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프로그램은 실제적인 체험과 교수법에 대한 교육으로 새로 배운 기술들에 대하여 동화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진행되었다.

### (1) 코넬의 Sharing nature에 대하여

#### (가) Joseph Cornell이란?

- 북부 캘리포니아 유바시 부근에서 자연을 경험하여 성장
- 자연인식학으로 최초의 학사학위를 받음
- National Audubon Society에서 자연주의자 훈련 과정 거침
- 공립학교의 'outdoor education program' 담당 및 보이스카우트 지도자로 7년간 일함
- 1978년부터 세계의 가장 성공적 공동체 중 하나인 '아난다 공동체' 안에서 아난디와 결혼  
-아난다 공동체 '[www.ananda.org](http://www.ananda.org)' 참조  
-네바다에서 1968년 설립, 840 에이커에 250명이 거주하며 공동생활
- 1979년 첫 번째 책, 『Sharing Nature with Children』 발행 이후 많은 책을 출판
- 국내에서는 『자연체험』(조셉 코넬 지음, 장상욱 옮김, 우리교육, 2002)이 출판되어 있고, 한국 웨어링네이처 연구소가 있어 선재학교를 운영하고 다양한 생태 프로그램을 기획, 국제 교류를 하고 있다.
- 이후 전세계 사람들에게 교육방법 지도와 워크샵 개최를 위해 Sharing Nature Foundation을 설립
- 전세계 약 20여개 국가에서 번역출판되어 소개되고 있다.

#### (나) Sharing Nature란 무엇인가?

Sharing Nature는 사람들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연에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 환경교육과 sharing nature와의 차이는 나바호 인디언 어린이가 자신을 그리라고 하자 자연 속의 나를 그린 것처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즉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 하는 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물 흐르듯 진행되는 Flow Learning™을 통해 프로그램을 자연스럽고 systematic하게 연결할 수 있다.

①동기유발 → ②주의집중 → ③활동을 하도록 유도 → ④공유

공유를 통해 자연을 전보다 가깝게 느끼도록 만들고 선생님도 이들로부터 feedback을 받아 더욱 발전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의 개별적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다.

결국 영성(inspiration)을 공유한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분위기라 할 수 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방방 뛰다가 그룹에 집중하게 되고, 2, 3단계를 거쳐 마음을 열고 평온함을 느낄 수 있게 된다. Flow Learning™은 상호적이며 지속적이다.

마지막으로 Flow Learning™은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서로를 포용하는 것, 몸과 마음으로 함께 느끼고 자연 속에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 (2) 날짜별 주요 활동

<표 7> Sharing Nature Program 일정표

날 짜	프로그램 진 행 일	내 용	프로그램명
8월 19일		도착, 방 배정 Opening meeting	
20일	첫째날	오전 : 실내교육 및 자연놀이 오후 : 아난다공동체 탐방	동물 이름 알아 맞추기 릴레이 나무의 일년 나무 만들기 연작시 쓰기
21일	둘째날	Sierra Butes Trekking Basin 호숫가에서 캠핑 캠프화이어	코넬씨의 이야기듣기
22일	셋째날	조류관찰과 명상 야외 자연놀이 Long Lake로 하이킹과 수영(불참)	자연명상 새 부르기 노아의 방주 나만의 장소를 찾아서 Joy in the midst hardship 나의 시(노래부르기)
23일	넷째날	캠핑에서 돌아옴 코넬과 Q&A(집으로 초대됨) Sunset 일본팀과의 대화의 시간	sunset
24일	다섯째날	피터와 함께 교육 Living Wisdom school 견학 Closing Activity(코넬씨와 함께)	천적과 먹이(먹이사슬) 애벌레 산책 밧줄따라 숲 속 여행 소리 지도 ecoing magic ball 바구니와 돌 나에게 편지쓰기/총 20가지
25일		Closing Circle	



### (3) 교육 프로그램의 시사점과 문제점 분석

코넬의 Sharing Nature의 경우 이미 국내에서 시행하는 것도 많이 있어 프로그램의 개별적 방법을 익히는 것보다 그 의미를 찾는 것에 연수의 목표를 두었고, 그 결과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었다. 2박 3일간의 캠핑도 너무 추워 고생스럽긴 했지만, 연극적 요소를 가미한 코넬의 진행, 어려움을 함께 하면서 느끼는 동료애, 무엇이든 직접 해보는 것의 중요성, 어린 시절 잠잘 때 할머니가 해 준 전설 같은 이야기 듣기 등은 고전적인 방법이지만 집중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은 그의 눈빛과 생활이다. 그를 보면 환경교육, 자연교육을 통해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몸소 배울 수 있다. 소박한 식사, 두 사람이 살기에 적당히 작은 집, 오토바이를 즐겨 타는 모습 등, 그의 삶은 환경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잘 결합되어 있었고, 그의 프로그램에도 잘 반영되어 있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준 것도 기억에 남는다.

그의 교육의 시사점은 아래 네 가지로 요약된다.

#### ▪분명한 목표

어린이들에게 무언가를 주겠다는 목표가 분명했고, 그 목표를 아이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 ▪사전 계획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어설픈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준비물과 가르칠 것을 준비해 놓은 것이 인상적이었다.

#### ▪미소와 열린 마음

코넬씨는 늘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고, 사람들을 편하게 대해 주었다. 그의 얼굴을 보면 가르치는 사람의 열린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지 알 수 있었다.

#### ▪Feedback

가르치고 난 후의 결과물을 통해 다음 번 교육에 도움을 받고, 또한 아이들에게서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라. PLT Meeting : 8월 27일

<표 8> PLT & WILD & WET 단체별 주요 현황

구분	PLT	WILD	WET
설립연도	1973	1996	1984
조직형태	정부산하단체	정부산하단체	NGO
지원	산림청산하의 산불관리 담당부서에 소속. 현재 정부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LT와 더불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음</li> <li>Environmental License의 수익일부를 지원받아 운영</li> </ul>	사업의 지원과 프로젝트 수행
운영방법	프로그램운영: 50개 주에 각각 PLT지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워크숍 형태의 교육 과정을 통해 교사 연수를 실시함.		
	워크숍의 운영과 계획: 워크숍의 계획과 운영은 각 지부의 코디네이터들이 하고 있으며, 워크숍에서의 교육은 자원봉사자가 담당하고 있음. 이러한 자원봉사자는 오랜 기간 PLT에서 활동한 사람이 중심을 이루며, 이들간 연속적인 자원봉사자 훈련체계가 형성되어 있어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워크숍의 교육자가 됨.		
	워크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내용은 참가자에게만 자료집을 제공, 공유토록 하고 있으며, 워크숍 교육자는 특별히 워크숍 프로그램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 매 워크숍에서 이루어졌던 내용을 상기하여 실제에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음. 매년 120여회 (PLT, WILD), 50여회(WET) 정도의 워크숍을 개최함.		
프로그램개발: 교사가 중심이 되어 현장에서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은 일정기간 동안 현장에서 실시하여 검증을 거쳐 수정작업을 거친다. 이후, 검증된 프로그램은 PLT의 매뉴얼에 추가하여 다른 교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함.			
주요 활동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워크숍을 통한 일반 교사연수</li> <li>사범대학생이나 교직이수자 대상의 환경교육</li> <li>환경교육 매뉴얼 작성과 환경교육 교재 개발 (주요내용은 수업의 목적과 방식, 교구, 교재관련 사항과 배경지식, 참고문헌목록과 평가방법을 포함)</li> <li>프로그램 개발</li> <li>환경 관련 이벤트 개최</li> </ul>	
	개별 사항	·산불관리와 교육활동	Project WILD/Aquatic WILD의 매뉴얼 개발-교재개발: WILD는 육지의 야생동물과 관련하여 113개의 활동을 포함, the Aquatic WILD는 수생동물과 관련된 40개의 활동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자원 관련된 정부기관 공무원과 일반기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보전목적의 관광 프로그램실시</li> <li>출판사업</li> <li>수자원관련 프로그램 진행</li> </ul>
프로그램 대상	유치원 이전 어린이부터 고등학생까지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

## (1) 교육 프로그램의 시사점과 문제점 분석

연수 일정으로 부득이 세 단체의 workshop에 참가하지 못한 건 아쉬웠지만, 이번 연수를 통해 각 단체의 성격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해한 것은 큰 성과였다고 본다. 각 단체 대표자들과의 Meeting은 얼굴도 모르는 Heidi 교수와의 e-mail을 통한 연계로 성사된 것이라 인터넷의 위력을 톡톡히 느낄 수 있었다.

위의 운영 현황과 같이 세 단체는 한 단체에서 분과한 것이나 각기 운영방법이 달랐다. 성격에 따라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는 게 좋아 보였다. 환경 분야는 무엇보다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일이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성과가 금방 보이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야 하므로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정부나 민간단체와의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사회 전반에 환경 보전에 대한 의식이 보편화되었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했다.

PLT 책자의 경우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고, 협력이 잘 되고 있다. 또한 유료 workshop을 통해 프로그램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자료가 축적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개선안을 도출하고, 이를 다시 학습하는 시스템이 잘 정착되어 있었고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세 단체의 활동은 학교 내 환경교육에 뚜렷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마다 담당자가 있고 활동을 위한 자원봉사자가 많아 프로그램의 원만한 진행이 이루어지는 것 역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 3. 결론 및 제언

### 가. 연수 결과

연수 계획 당시 기대했던 바를 토대로 분석해 보았다.

#### (1) 환경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재조명

무엇보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자발적인 시민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국립공원의 경우 정부에서 하는 일과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각 단체의 성격에 맞게 유료 또는 무료로 진행되고 있었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다양한 단체들이 협력하고 있었다. 또한 PLT 등과의 meeting에서도 정부와 민간단체의 협력이 필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여러 시민단체가 정부와 다양한 방법으로 공조하고 있지만 보다 큰 문제를 위하여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인 듯하다.

국립공원의 경우 환경교육이라 하여 환경문제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자연물과 문화, 역사를 결합하여 탐방코스를 만들고 자연물 하나하나에도 역사적 의미를 포함한 것이 특징적이었다. 환경교육의 최종 목표는 의식전환과 함께 행동의 변화이다. 이번 코넬의 Sharing Nature의 경우 환경교육을 통한 목표를 돌아보고 이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고민한 시간이었다.

## (2) 선진 환경교육의 흐름 파악

환경교육의 큰 테마에 있어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짧은 연수기간 동안 보았던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도 학교 환경교육에서는 PLT 등이, 민간 차원에서는 지역별로 활동하는 주체들이 있었고, Sharing Nature의 경우 환경교육과 더불어 영적 성장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사실 환경교육을 별도의 교육 분야로 보기보다는 학교와 민간단체 등 사회전반이 다양한 자연환경에서의 활동이 가능한 것이 사실이고, 미국에서 그것을 재확인했다고 할 수 있겠다.

## (3) 우리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국립공원의 경우 자연환경의 특성에 맞는 탐방코스 해설과 프로그램이 구비되어 있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면적은 작지만 다양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단체와 주민이 주체가 되어 프로그램을 특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번 연수를 통해 프로그램을 구체화시키는 것보다는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눈을 조금 뜬 것 같다.

또한 대상자가 '환경교육'을 받기 위해 자연에 온 것이 아니므로 대상자들을 충분히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소식지 발행이 매주 있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 같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시설 투자에는 많은 돈을 들이면서도 실제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서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면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하겠다. 방문자 센터도 방문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동선 설정과 전시물 위치를 잘 선정해야 하겠다.

## (4) 연구 결과의 정확한 현장 적용

연구를 다녀와 Sharing Nature의 방법을 직접 활용해 보았다. 노아의 방주, 동물이름 알아맞추기 릴레이, 나무의 일년, 나만의 장소를 찾아서, ecoing 등 특별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자가 진심으로 환경교육자로서의 자세를 갖추었느냐 하는 것이다. 놀이 시작 전 설명과, 끝나고 난 후 놀이의 의의에 대해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 주어야 하고, 잘 맞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 지 지속적인 수정작업이 필요하다. 이번 연수팀의 성격상 현장에서 다양한 적용이 가능하니만큼 연수결과에 대해 각자의 맡은 분야에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나. 제언

실무자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들과의 접촉 경로를 알지 못해 제대로 의사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초반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실무자들을 몰랐던 것도 사실이고 우리처럼 세계 각국으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촉해 오는 사람들이 많은 그들의 입장에서 일일이 답해주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메일을 보낼 때, 우리 자신에 대한 정보와 무엇을 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일일이 답을 해줄 수도 없거니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

더욱이 한국인인 우리와 그들의 사고는 사뭇 다르다. 그들은 모든 일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표현되기를 바라는 것 같다. 국내에서는 우리의 의도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언어와 문화가 다른 그들과의 의사소통은 그렇지 못한 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일해서 팀 연수일정을 확정짓기까지 수십 번의 메일을 교환해야 했다. 사소한 문제부터 연수비용 및 일정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정리해서 보내야 했다. 그리고 우리의 사정을 정확히 인지시켜 연수목적에 합당한 연수를 하기 위해 우리의 관심 분야, 목적, 앞으로 하고자 하는 바 등을 정리해서 보내야 했다. 처음부터 그쪽에 인맥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처럼 할 필요가 없다. 아주 편하게 그들과 몇 마디로 일정을 확정지을 수 있다. 그러나 전혀 알지 못하는 단체와 교섭을 시작할 때는 위에서 언급한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 연수를 크게 PLT와 웨어링네이처로 나누어 볼 때, 웨어링네이처는 계획대로 진행되었지만 PLT는 처음 제출한 계획대로 하지 못한 것 같다. 생각해 보면 15일 내외의 기간과 동일 지역 내에서 두 프로그램을 함께 편성하기란 무척 어려웠다. 현지에서 팀 연수의도에 적합한 일정을 짜 줄 코디가 없었다. 이 문제는 다음에 다른 팀이 가더라도 같은 문제가 되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인터넷과 이메일을 통해 사람을 소개받고 정보를 얻었으나 의외로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국립공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다. 우선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7, 8월에 진행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이 있다는 것이 세상 이치이다. 현지 사정 때문에 당초의 의도대로 못한 것도 있었지만 여유롭게 커피 한잔 먹을 사이도 없이 열심히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들었다고 생각된다.

5명이 함께 다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팀원간 협력이 필요하다. 팀원이 모두 미국 여행 등 해외여행의 경험이 풍부할 뿐 아니라 외국으로 환경교육 연수를 다녀온 경험들이 있어 서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생각보다 연수비용이 많이 들어 지원금 50%, 자비 50%로 진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경비를 아껴야 했던 것만큼 잠자리며 식사며 충분히 못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몸이 조금 바쁘고 서로 피곤한 일정에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역할분장과 업무 협력이 잘 되어야 할 것이다.

연수기간과 지원금 모두 적당했다고 생각되며, 재단에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방문 국가 및 일정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앞으로 연수 후 2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솔직히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다녀와 바로 보고서를 쓸 생각이었는데 제출 기한이 연말까지라고 하여 계속 미루어 두었다. 미리 초안을 작성하긴 했지만, 다녀온 후 시간이 경과하다 보니 방문 후 소감이 많이 빠진 듯하다.